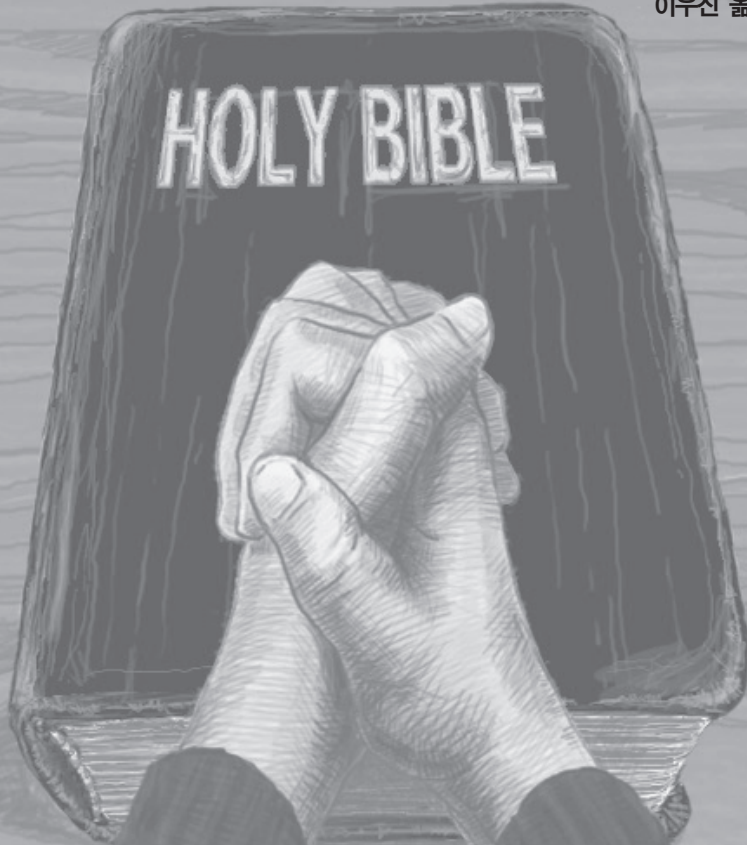


Why We Stand On The KJV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Bible Publications

Why We Stand On The KJV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1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지은이 | James W. Knox

옮긴이 | 이우진

초판발행 | 2011.2.19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v.com

표지그림 | 이장용 [jy13b@naver.com](mailto: jy13b@naver.com)

표지디자인 · 편집 |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mailto: choilove72@hotmail.com)

■ ISBN 978-89-89741-25-1

■ 정가 1,000원

■ 과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독자들에게 알리는 글

이 책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딜랜드 시에서 Bible Baptist Church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James W. Knox 형제가 라디오에서 강의한 **Why We Stand On The KJV 1,2**의 내용을 요약하고 옮긴 것입니다. 라디오 강의라는 특성 때문에 듣기와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전체를 번역 하지 못하고 요약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비록 요약이지만, 원래 강의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원래의 강의를 라디오로 진행되던 것이라 다소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역자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성경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 12:6-7)

Why We Stand On The KJV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Part 1/2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하고 나서 그저 자기 길을 가버린 사람이 빌라도가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하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았습니
다.¹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신의 말씀을 영감으로, 완벽하고 순수한 형태의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성경을 그렇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시편 12:6-7을 보세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

¹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saith),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18:38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로 나간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역주

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보존하는 책임은 성경 기록자나 서기관이나 번역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책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보존하시는 일에 대한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독자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원본이 원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최초의 원본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주시고 나서 그것을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보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완벽한 형태로 주셨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키시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다고 믿지 않는 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이단들이나 이교도들은 어떠한 오류도 없는 완벽한 성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불교도들, 이슬람교도들, 힌두교인들이나 카톨릭교인들과 같은 이단들과 이교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전혀 오류가 없는 완벽한 책이 존재합니까?” 앞에서 제가 열거한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두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자신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 보십시오. 문제는 이들도 성경 문제에 있어서는 이단들이나 이교도들과 정확히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완벽한 책인 성경을 주셨고 또 그 책을 스스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보존에 관해서는 여호와의 증인들, 불교도들, 회교도들, 힌두교도들, 카톨릭 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

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이단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벽한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주셨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믿음은 기독교계 내에서조차 독특한 믿음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성경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킹제임스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킹제임스성경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는 답변도 듣기 전에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나?”고 “말하고” 가버렸던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D. E.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 이 사람이 1978년 어느날 기독교 서점에 가서 킹제임스성경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원이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구식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번역된 다른 성경들을 보여주면서 새로 나온 성경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계속 킹제임스성경을 달라고 하니까 이 점원이 설득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논리가 이랬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발들이 많이 있는데 왜 367년이나 된 신발을 신으려고 하세요?” 그 점원의 단순한 논리는 오래된 신발보다는 새 신발을 사서 신는 것처럼 오래된 성경보다는 새로운 성경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성경의 영어처럼 옛날 영어가 아닌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현대 영어로 기록된 성경, 즉 자신들이 쓰는 말로 기록된 성경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점원도 결국에는 킹제임스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사람도 킹제임스성경이 지난 400년간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킹제임스성경과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본 후에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답을 구한다면 결국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알게 됩니다.

킹제임스성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성경보다 우수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킹제임스성경의 근본이 되었던 본문²의 우수성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만들

어 내는 사람들이 성경을 광고하면서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 새로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읽기가 좋습니다. 이 성경은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으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 성경은 아주 좋은 그리스어 원문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팔아 먹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쏟아져 나오는 성경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난 수천년간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사용한 성경과 수천 군데가 다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 대학의 교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킹제임스성경이 몇몇 잘못된 그리스어 원문에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보면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또 매우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빈약한 증거로 킹제임스성경을 공격해도 사람들은 주의깊게 살펴보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52년에 나온 개역표준역본³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 대부분의 새로운 영어 성경들의 아버지 격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런

² 본문(Text) - 여기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구약성경)나 그리스어(신약성경)로된 원어 성경을 말합니다. -역주

³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19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어 필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필사본들은 킹제임스성경이 나올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로 매우 우수한 필사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수한 필사본들을 근본으로 한 개역표준역본은 킹제임스성경에서 범한 많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번역된 것입니다.”

그들은 킹제임스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떤 오류인지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좋은 성경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략 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만 성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경 문제에 별로 관심도 없고 따라서 성경 문제를 제대로 연구해 보지 않은 목사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들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신들만 잘못된 성경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성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의 교수들과 목사들의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단순히 고문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수정하고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은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바로잡는다고 생각합니다. 킹제임스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킹제임스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성경도 아무런 오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킹제임스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성경 번역자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을 다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놀라겠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번역자들은 자신들이 번역하는 것이 그저 오래된 고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과 생각에 맞지 않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현대 번역본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대 번역자들의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학자들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이 다른 성경보다 탁월한 두 번째 이유는 킹제임스성경이 번역된 방법에 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본문 선정에 있어서도 수백년 동안 교회에서 사용되던 본문인 마소라원문과 수용원문을 본문으로 하여 원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였습니다.⁴ 그들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단어 대 단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만일 문법적으로 그리스어에 없는 단어를 첨가해야 할 때면 영어로는 그것을 이탤릭체로 표시했습니다.⁵ 이로써 킹제임스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어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번역자들이 첨가한 단어가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킹제임스성경을 제외한 새로운 성경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들은 있는 그대로 직역된 성경이 아니라 번역자들이 해석한 것을 옮겨 적은 성경이므로 단어 대 단어로 옮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었던 단어를 첨가한 것을 표시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단어

를 첨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를 첨가하지 않고는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로는 한 단어인 것이 스페인어로는 두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언어에서는 복합어로서 한 단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는 한 단어가 아닌 두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어를 추가한 것일까요? 단어를 추가한 것이기도 하지만 추가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⁶

킹제임스성경은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단어를 첨가할 경우 그것을 이탤릭체로 표시하여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의 단어는 모두 그리스어 원문에 동일하게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성경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현대번역본들의 경우 킹제임스성경과는 달리, 번역자가 임의

⁴ 킹제임스성경은 신구약 모두 전통원문에서 번역하였습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원문(MT, Masoretic Text)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리스어 수용원문(TR, Textus Receptus)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이들 원문은 킹제임스성경이 번역될 당시 수백년간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는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던 것들입니다.-역주

⁵ 이탤릭체는 *기술어진 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로마서 1:1에서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에서 “to be”와 같은 것입니다.-역주

⁶ 이와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면, 그리스어의 경우 부정관사가 없지만 영어의 경우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로 문장을 번역할 때에는 부정관사를 “첨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어를 추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추가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역주

로 추가한 단어가 무엇인지 독자는 결코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킹제임스성경의 우수성은 원어성경을 직역하기 위해 번역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던 단복수를 구별하는 장치를 번역에 적용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영어는 2인칭 단수와 복수가 모두 you로 동일하지만 성경 히브리어에는 2인칭 단수와 복수가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성경에 나오는 thee와 thou 같은 단어가 고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thee와 thou 같은 단어들은 1600년대에 사용되던 단어가 아닙니다. 그 때에도 모두 you로 사용되었습니다. thee와 thou는 1600년대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독자들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thee와 thou로 2인칭 단복수를 구별해 준 것입니다.

“(31절)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너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누가복음 22:31-32의 경우에, 31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32절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2인칭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킹제임스성경에서 you, your, yours 처럼 ‘y’ 로 시작하는 단어는 2인칭 복수형입니다. 반면에 thee, thine, thou, thy 처럼 ‘t’ 로 시작하는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현대 역본들에서는 이러한 단복수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성경보다 이해하기 쉽다고 광고를 합니다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성경보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은 2인칭 지시대명사가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현대 역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들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자아중심적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으로 성경에서 you라는 2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엉뚱하게도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들이 2인칭대명사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독자들은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2인칭 단복수를 나누고 있으며 따라서 킹제임스성경이 2인칭 단복수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요약 및 정리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완벽한 책이 없다고 생각하며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즉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는 완벽한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잘못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해서는 불신자들과 정확히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보다는 자기 자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번역본들의 번역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의 고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이나 대하는 자세가 성경을 거부하는 진화론자들과 동일합니다. 킹제임스성경은 바른 원문에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은 바른 원문에서 바르게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단어를 부득이하게 첨가해야만 할 때, 어떤 단어가 첨가된 단어인지 독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 첨가된 단어를 이탤릭체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번역본들은 번역자가 임의로 단어를 삭제하거나 첨가하였으며 그것을 독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알고자 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킹제임스성경과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본다면 올바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찾아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Why We Stand On The KJV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Part 2/2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문제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바로 보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형태로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보존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떠한 오류도 없는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 세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아숭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중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선택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의 번역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흠정역 성경의 번역자들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본문은 그대로 중의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3:19이 있습

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the love of Christ)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본문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the love of
Christ”는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혹
은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이유는 킹제임스성경의 번
역자들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
석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들은 번
역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번역자라면 원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성경을 주실
때 중의성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그대로 중의성을 가진 문장으
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독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려하지 않
고 성경을 그대로 번역함으로 독자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자와 번역자가 할 일은 각기 다
릅니다. 번역자는 번역에 충실해야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이 번역을 정직하게 하였기 때
문에 성경에 기록된 교리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에 다른 성경의 번역자들은 자신들이 원문을 해석해서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맞추어 성경을 번역함으로 새로운 교리를 창조해 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번역한 또다른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롬 9:5)⁷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되심을 증거하시는 동시에 하나님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⁸ 그러나 새로운 성경들은 이 부분이 변개되어 있습니다.⁹

또한 킹제임스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증거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변개된 성경들은 그러한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눅 2:33)¹⁰

⁷ King James Bible에는 “Whose are the fathers, and of whom as concerning the flesh Christ came, who is over all, God blessed for ever. Amen.”라고 되어 있습니다.-역주

⁸ 한글개역성경은 본문에서는 성경을 변개하지 않았지만 각주에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에 찬양이 있으리로다”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역주

⁹ 개역표준역본(Revised Standard Version)에는 “to them belong the patriarchs, and of their race, according to the flesh, is the Christ. God who is over all be blessed for ever.”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역주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번역자들은 대부분 에큐메니칼운동을 신봉하는 자들로, 자신들이 믿는 특정한 교리에 맞추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자들은 그들이 해석한 성경을 번역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교리가 성경적인 것인 양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 출판은 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번역자들 중에는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대 성경의 번역자들 중에는 카톨릭 교인, 유대인 혹은 유니테리안 같은 이단들이 섞여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번역하든 상관하지 않는 독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문제를 다룰 때에 번역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직한 번역자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자신이 믿는 교리를 성경번역 속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 번역본은 마리아승배를 정당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¹⁰ 한글개역성경은 눅 2:33에서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함으로 요셉이 예수님의 친부인 것처럼 번개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역주

¹¹ 에큐메니칼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일치운동”입니다. 각각의 교회는 서로 다른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를 믿는 교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믿는 교리의 교집합만을 추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같은 교리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한 교단이 믿지 않는 교리는 성경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번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역주

다른 현대 번역본은 구원을 받는데 회개는 전혀 필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인간의 다른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성경도 있습니다. 현대의 부패한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이나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과 같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변경시켰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은 건전한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번역자들은 성경번역에 있어서 많은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번역자들로 하여금 해석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인용부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현대 번역본들에는 본문에서 대화가 나오는 부분은 인용부호로 묶어버리지만 실제적으로 대화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¹² 이를 떼면 요한복음 3장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시작하신 말씀을 어디서 끝내신 것이고 어디부터가 사도 요한의 진술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13절까지라고 하고 다른 이는

¹² 한글개역성경에는 인용부호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성경이나 표준새번역과 같은 개역성경이후에 번역된 성경들에는 인용부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역주

¹³ “테트라그라마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입니다. 원래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레

15절까지라고 하며 17절까지라는 주장도 있고 21절까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스어 본문에는 어떠한 인용부호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도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변개된 성경의 번역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원래의 본문의 의도를 훼손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을 이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테트라그라마톤¹³이라 불리우는 주님의 이름을 번역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4개의 자음(YHWH)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읽을 수도 없고 번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이것을 “LORD”라고 표시한 것입니다.¹⁴

다른 방법으로는 번역할 수 없기에 테트라그라마톤은 일관되게 “LORD”¹⁵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 단어를 눈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은 하나님의 이름의 철자 4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역주

¹³ 한글 성경의 경우, 테트라그라마톤을 흠정역 성경에서는 굵은 고딕체로 “주”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글개역성경의 경우 “여호와”라고 하여 번역이 아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역주

¹⁵ 테트라그라마톤은 항상 모든 철자가 대문자인 “LORD”인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역주

“Lord”라는 단어와는 당연히 다른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Lord”는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나 남편 등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한 나머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므로 이름의 발음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이름(‘테트라그라마톤’으로 부르는)은 비록 자음으로만 이루어졌지만 부르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결국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히브리어 네 철자로 구성된 테트라그라마톤을 발음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을 유대인들이 부르는 방법대로 주님이라고 번역하면서 기존의 Lord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LORD로 표시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번역이 될 수 없는 것은 번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음으로 표시된 것을 읽을 수 없는 것처럼 테트라그라마톤도 읽을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나 “야훼”라고 옮기는 것은 번역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해석인 것입니다. 성경번역은 그대로 번역으로 끝나야지 해

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석을 하려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경우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번역의 영역에서는 해석을 할 수도 없고 해석이 용납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¹⁶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원문에서 사용하는 중의적인 표현은 그대로 살려둠으로써 독자들이 성경의 연구와 묵상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은 they, he, she와 같은 대명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되짚어 보며 성경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대의 번역본들은 대명사를 실명사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다른 형태의 해석이 됨은 물론이고 충실한 번역도 아닙니다.

킹제임스성경에는 번역자들의 해석이 없습니다. 오직 원어에 충실한 번역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경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자신들이 번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교파의 사람들만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서공회나 성경출판사들은 특정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번역으로 된 성경을 제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¹⁶ 의역도 일종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번역에 해석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금지되어야 합니다. -역주

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만 포함된 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미국성서공회의 번역위원장인 유진 니다에 의하면 성경 번역은 “내용의 동등성”만 유지하면 충분한 것이라고 합니다.¹⁷ 그러나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번역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이 왜 해석이나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이유를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경건한 학자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파를 위해 성경을 번역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판매수입을 올리기 위해 번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현대 성경 번역자들과는 다르게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이 번역되던 시기에는 신학이 철학에 물들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철학에 물들지 않고 번역되게 하기 위해서 17세기 초에 성경이 번역되도록 하셨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이 번역되고 나서야 철학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¹⁷ 내용의 동등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의역한다는 말입니다.-역주

떨치며 신학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철학과 철학적 사고방식에 물든 현대의 번역자들은 성경을 순수하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했 듯이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번역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책이 아니라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번역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번역자들이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합당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경번역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적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경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자들은 영적능력과 지적능력이 모두 탁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은 철자의 정확성을 위해 150여 년에 걸쳐 4번의 교열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번역본들은 50여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출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성경은 출간된 지 수백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영어 성경의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킹제임스성경을,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결국 킹제임스성경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킹제임스성경에서 번역된 다양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은 영어라는 언어를 세월의 공격에 맞서 지켜내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언어들에는 수백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매우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불과 수십 년 전에 기록된 글이 현대에는 매우 어색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같은 언어인데도 수백년 전에 기록된 문장이 현대의 문법으로는 해석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성경은, 수백년이 지났어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치고 킹제임스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많은 찬송가들이 킹제임스성경의 언어(특히 시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예배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수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성경이 바뀌지 않고 찬송이 바뀌지 않음으로 동일한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 그 반복되는 말씀이 쉽게 기억되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열매맺게 됩니다.

“너는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행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수 1:8)

오늘날 킹제임스성경은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한 바른 본문에서 바른 방법으로 번역된 신실한 번역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은 언제나 진리이며, 인간의 사상에 따라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므로 누구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성경을 구매하라고 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로운 성경의 열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들로 인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건전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새로운 성경들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만일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성경들을 재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킹제임스성경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옛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세웠던 그 길,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¹⁸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반석인 킹제임스성경 위에 서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렘 6:16a)

¹⁸ 킹제임스성경은 영미권에서 지난 400년 간 사랑받은 성경입니다.-역주

요약 및 정리

하나님께서서는 완벽한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완벽한 성경을 온전히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성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킹제임스성경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가지 않은 성경입니다. 오늘날 변개된 성서들은 대부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원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해석은 번역이 아니며 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성경 변개는 번역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번역자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번역자 자신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뜯어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성경에는 번역자가 만들어낸 새로운 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일은 오늘날 성경 번역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번역자들이 번역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될는지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킹제임스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성경 번역자들이 철학에 물들기 이전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성경번역자들은 철학과 과학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철학과 과학의 방법과 잣대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은 출간된 지 수백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영
어성경의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킹제임스성경에서 선교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
서 킹제임스성경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기에 계속 반
복해서 읽을 수 있었고 암기할 수 있었으며 결국 그 말씀이 마음
에 터를 잡고 뿌리를 내려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